

## 대중화와 전문화에 더욱 다가가기 위한 교양과 지리경영으로의 지리학 방향 전환에 관한 연구

옥한석\*

### A Study on Turning to Being Cultured and Geography Management to Get Closer to Populzarization and Specialization of Geography

Han Suk Ock\*

**요약** : 이 연구는 대중화와 전문화가 지식의 발전이라고 전제 한 후 지리학이 대중화와 전문화에 더욱 다가가기 위해서 그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며 그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인간의 지리적 본성' 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여 지리학의 연구 대상이 등질적·획일적·단면적인 지표 공간 뿐 아니라 고유성·개체성·역사성을 갖는 실체로서의 지표 공간을 대상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지리학 연구 대상의 이원성을 해결해보고자 하였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지리적 본성에 따른 인간의 지리적 탐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어 대중화와 전문화도 자연스럽게 수용될 수 있게 되며, 과학적 논리 실증주의적 방법론과 인본주의적 방법론이 서로 통합될 수 있게 된다. 인간의 지리적 본성은 이동성, 적응성, 연결성, 관념성, 잡종성의 특성이 창조론과 진화론에서 추론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인간의 지리적 본성을 기초로 하여 지리적 개념을 정리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지리학의 대중화는 '교양' 으로서의 지리가, 지리학의 전문화는 '지리 경영' 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교양으로서의 지리는 여행, 예술·문화활동, 레저·스포츠 활동, 외식문화, 오락 등이 주된 연구 주제가 되어야 하며, '지리경영' 은 계획과 관리의 입장에서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오늘날 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지리경영' 요소를 더욱 중요시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주요어** : 대중화, 전문화, 인간의 지리적 본성, 교양으로서의 지리, 지리 경영

**Abstract** : This study explains a turning to being cultured and geography management to get closer to popularization and specialization of geography, for which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y are for development of knowledge. It adopts the idea of human's geographical nature to solve the dualism which geography is referred as science and art. An object geographer studies is homogeneous, temporal as well as identical and individual. To adopt human's geographical nature causes to human's geographical investigation, and uniting positivism to humanism. It deduces from the Bible and Evolutionism that it is characteristic of mobility, adaptability, connectivity, ideality, and hybridity. Geographical concepts is based on the fact that it can be applied to geographical research theme. Popularization of geography has to relate to being cultural, and specialization of geography has to relate to geography management.

**Key Words** : popularization, specialization, human's geographical nature, geography as being cultured, geography management

\*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ock@kangwon.ac.kr

## 1. 서론

지난 50년간 한국의 지리학은 양적 질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학의 대중화<sup>1)</sup>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문적인 지리교육을 받은 이들의 진로는 극히 제한적이다.<sup>2)</sup> 왜 이러한 일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sup>3)</sup> 이 연구는 전통적인 지리학의 주요 기본 개념이 오늘날의 학생 뿐 아니라 대중들의 일상생활 경험과 유리되어 있거나 지리적 개념이 산업시대 초기의 사정에 국한되어 있어 이들이 그동안의 시대적인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지리학적인 학문 연구의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다시 말해 지리학의 학문적 개념이 초기에 체계화된 근대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의 지리학이 오늘날의 현실과 너무 괴리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의문을 가져 볼 수는 있다. 이제 지리연구자, 혹은 지리전문가에 의하여 대부분 고안된 '장소' '지역' '경관' '공간' '환경' 등의 개념이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나타났는지 다시 성찰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지리상의 발견과 대항해시대'에 축적된 지리정보는 당시 소수 지리학자 등의 전유물이었으나 오늘날은 인터넷과 무선 휴대전화기로 누구나 검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제 대중이나 시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하게 지리적 개념을 적용하는 일이 '쇠귀에 경 읽기' 식이라고 보여진다. 지리학의 발달사를 보면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지리학자가 고안해 놓은 개념이 당시의 생활상을 잘 반영하였지만 오늘날의 현대 생활과 잘 부합되지 않아 지리학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피상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이 연구는 지리학의 연구 주제가 대중과 밀착되고 전문적인 지리교육을 받은 이들의 진로가 보다 확장되는 것이 지식의 발전이라고 전제 한 후 이를 위하여 지리학은 대중을 위한 교양이나 전문적인 지리경영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방향전환으로서 교양이나 지리경영에 관하여 살펴

보기 전에 지리학의 학문적 대상과 관련된 논의가 필요하다. 지리학의 학문적 연구 대상을 '땅' 혹은 '지구 표면'으로 한정할 경우 과학적 논리 실증주의적 방법론에 의존하게 되므로 공간과 장소에 대하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라고 하는 인본주의적 방법론은 소홀히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감성적이고 심미적인 대중으로부터 지리적 이해는 멀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 연구는 먼저 '인간의 지리적 본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여 지리학의 연구 대상이 등질적·획일적·단면적인 실체로서의 지표 공간 뿐 아니라 고유성·개체성·역사성을 갖는 상징적 공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지리학 연구 대상의 이원성(Lee, 1991)을 해결해보고자 한다. 이렇게 되면 실증주의적 방법론에 의하여 생산된 '지리적 개념'이 인본주의적 입장과 접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지리학은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지식체계가 되는 것이다.

지리학이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지식체계가 된다면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목표는 대중의 '교양'이나 가치창조를 지향하는 '지리경영'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인간은 지리적 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연히 지리를 교양으로 배워야 하며 이 때문에 지리경영을 통하여 인간의 가치가 교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는 지리학이 대중화와 전문화에 더욱 다가가기 위한 방향 전환으로서 교양과 지리경영이 되어야 하는 문제에 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교양과 전문적인 지리 경영은 분명히 차원이 다르며 그렇다만 지리적 개념의 적용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지리가 대중의 교양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리적 개념의 적용을 위한 그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며 지리 경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 2. 인간의 지리적 이해 필요성과 지리적 본성 및 개념

### 1) 인간의 지리적 이해 필요성과 지리적 본성

오늘날 인간은 지리적 이해를 필요로 하는가? 정보

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지리정보의 획득과 검색은 더 이상 지리학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원하는 장소와 지역에 관한 정보는 실시간으로 검색이 가능해졌고 다큐멘터리 작가나 방송 프로듀서는 지리학자보다도 더 상세하고도 현장감 있는 정보를 대중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학술적인 지식 생산에 의존하는 지리학자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지리학의 존립의 근거가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지리학의 전문적인 분석 방법과 철학은 계획, 평가 영역에 기여하게 되었지만 훈련받은 지리전문가의 사회적 진출 기회는 협소하며 오히려 다른 분야의 인력이 선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리학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 제고가 요청되며 이를 위해서는 지리학이 과학인가 아니면 예술인가 하는 오래 묵은 논쟁을 탈피하여 인간은 원래부터 지리적 본성에 기인하여 행동해 왔고 이것이 일상생활에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인간이 지리적 본성이 있다면 지리적 이해의 필요성에 관하여 그 여부를 주장할 필요성이 없다.

인간의 지리적 본성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밝히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화, 전설, 종교 경전 등의 기록된 문헌에 의하여 살펴볼 수 있다고 보며 무엇보다도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이 '인류 집단의 기원과 출현'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말해주고 있으므로 '창조론'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다. 구약성경은 헤브라이어로 기록되었으며 셈어 계통의 언어로서 약 6000년 전 경에 발생하였다. 천지창조의 목적과 인간의 출생 비밀에 관하여 구전되어오다가 어느 때 문자의 등장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이며 사해문서의 발굴로 햇빛을 보게 되었다. 사해 문서의 창세기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숭배하는 최고신 하나님(야훼신)이 6일간에 걸쳐 천지를 창조하였다고 한다.<sup>4)</sup> 이러한 천지창조의 기록은 대단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sup>5)</sup> 특히 인간의 최초 거주지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어진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 (중

략) ...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 (중략) ...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중략) ...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열매를 따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Korean Bible Society, 2005).

유대인과 기독교도는 인류가 창조가 된 곳은 에덴동산이며 그곳은 바로 소아시아 일대의 어디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후 최초로 창조된 인간은 최고신 하나님의 영을 가지게 되었지만 에덴동산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어 신성을 일부 잃게 되고 에덴동산에서 추방되었다고 전한다. 에덴동산에서 추방된 이유는 선과 악을 아는 고통 속에 유한한 생을 살게 된 인류 집단이 에덴동산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삼중의 고통을 겪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에 따르면 유대교와 기독교도의 역사는 원죄를 속죄하여 영원한 생을 누릴 수 있는 에덴동산으로 돌아가기 위한 참회의 기록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창조론에 의하면 에덴동산을 찾기 위하여 이동하는 '이동성'과 생명나무라고 하는 '관념성'을 인간이 열망하게 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관념성이 확장되어 '연결성', '적응성', '잡종성' 등의 본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본다.

기독교적 창조론을 냉혹한 과학적 설명으로 대체한 것이 진화론이다. 다윈의 저서 종의 기원에서 주장된 진화론에 관한 논의는 진화의 사실과 이론을 구분하는 일이 중요하다. 인간을 포함한 생물체가 진화되었다는 사실은 곡물과 가축의 개량 등의 풍부한 구체적인 사실에서, 그리고 이러한 작은 변화가 새로운 종의 탄생으로 이어진다는 중간 단계의 변화 증거인 화석의 기록이 불충분하지만 고 생물학자에 의하여 발견된 훌륭한 예에서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진화의 사실에도 불

구하고 왜 이러한 진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한 설명, 즉 진화이론에 대하여 창조론자들은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다윈은 인간의 출현에 대하여 자연선택이론을 제시하였다. 다윈이 제시한 자연 선택이론은 다음과 같다. 즉 모든 생명체는 실제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의 자손을 낳으며, 같은 종에 속하는 개체들이라도 저마다 다른 형질을 갖으며, 서로 다른 형질의 일부가 자손에게 전달된다는 세 가지 원리에서 자연선택 이론이 추론되었다.<sup>6)</sup> 다윈이 제시한 자연선택의 메커니즘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무 방향성 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국지적 적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만 열어두고 생명의 역사나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에 창조론자들이 비판하고 있다.

진화론자의 주장에 의한 인류역사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화석 발굴에 의하여 인류종의 하나인 화석인류 즉, 약 600만 년쯤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약 250만 년쯤에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호모 하빌리스가, 약 150만 년쯤에 직립보행의 호모 에렉투스가, 약 40만 년쯤에 호모 사피에스가 차례로 출현하였다고 한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인 현생인류는 15만 년쯤에 아프리카에서 출현하였다고 한다. 화석인류의 출현은 자연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잘 적응할 수 있는 유전인자를 가진 집단이었다고 진화론자들은 생각하고 있다. 오늘날의 유전학연구 결과에 따르면 참 원숭이 아목에 속하는 침팬지와 인간이 98.4%의 유전자 일치율을 보이고 있어 호모 속에 속한 인류 종은 참 원숭이류로부터 자연 선택의 원리에 따라 진화하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15만 년 전에 출현한 현생인류 집단도 진화를 계속하여 피부색이나 모발조직 같은 외견상의 변화 뿐 아니라 지력이나 언어 능력에 큰 변화가 나타나 최소한 10만 년쯤에 인류가 현재 인간과 매우 흡사한 신체구조를 분명히 갖게 되었다고 본다(Aydon, 2010).

10만 년 전 동아프리카 일대에 살았던 1만 여명 정도의 현생 인류는 스무 명, 혹은 서른 명 정도의 가족단위로 초원지대를 떠돌이 생활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현대인과 비슷한 큰 두뇌를 가지고 있어 복잡한 방식의 의사소통이 가능하였으며 식물과 동물에 관한 정보, 사냥 방식 등을 공유할 수 있었다. 이들은 아프리카의 초원에서 따뜻한 기후 아래 수렵과 채집을 하면

서 풍요롭고 건강한 생활을 하였다고 전하여진다. 이들도 지질시대 이후 기후변화에 따라 도래한 간빙기에 낮아진 해수면을 따라 기원전 6~7만 년 전에 수백 명 정도가 아프리카를 벗어나고 그들의 자손들이 아시아 남부 해안과 남동부 해안으로, 그리고 몇 세대에 걸쳐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까지 진출하였다. 4만 년 전 쯤에는 유럽과 아시아 남서부지역에도 진출하였다(Aydon, 2010).

현생인류가 아프리카를 떠나 세계 각지로 진출하기 시작할 즈음 이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인류 종들은 사라졌다는 것이다. 화석인류를 포함하여 사라진 인류 종들은 운 나쁘게 잘못된 시대, 잘못된 장소에 있다가 변을 당한 결과이며, 이는 다윈의 이론인 '자연선택'과 '성 선택'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두 이론에 의하여 나타난 형질적 변이는 자연선택에 의한 압력 없이 생물의 한 개체군에서 유전자의 양적, 질적 빈도가 무작위 요인에 의하여 변해되는 '유전적 부동과정'에서 우연히 생겼다(Aydon, 2010)고 본다. 우리가 유전적 부동을 받아들여지게 되면 인류종의 미래에 관한 유전적 변화를 아무도 알 수 없기에 진화론자들은 노심초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진화론을 받아들여지게 되면 인류 집단은 이동성, 적응성, 연결성, 관념성, 잡종성의 특성을 자연스럽게 추론할 수 있게 된다. 창조론에 의하면 에덴동산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는 '이동성', 죄 값을 치룰 수밖에 없는 '적응성', 항상 에덴동산을 그리워하는 '연결성'과 '관념성', 새로운 이상향을 건설하려는 '잡종성'의 지리적 본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지리적 본성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생각해보면 새, 말, 낙타 등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이동성은 동물적 본능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이동성은 다분히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다. 마차, 기차, 기선, 자동차, 항공기 등의 교통수단 발달은 인간의 이동성에 관한 자유의지가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서 이동성의 증대는 오늘날 지구의 시공간 압축을 가져와 세계화 시대에 인류 집단이 살게 되었다. 이동성의 열망은 대중적 여행과 관광으로 잘 표현되고 있다. 인간의 두 번째 특성인 적응성은 자연환경의 변화 혹은 새로운 자연환경에의 적응성을 말한다. 원래부터 태어난 곳이 변화하게 됨에 따라 도태

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연환경을 찾아 이동하거나 새로운 자연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적응성은 도구의 발명에 힘입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인류 집단은 과거의 환경에 적응하여 살던 곳을 잊지 않거나 과거의 장소와 새로운 장소를 연결하며 부단히 상호 교류를 하게 된다. 이는 연결성이라고 지리적 본성이다. 새로운 물자나 자원이 있는 곳을 찾게 되면 과거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부단히 연결시켜 자원의 공급이 단정되지 않도록 하며 교역과 교환을 통하여 물자를 보완해 나가게 된다. 관념성은 인간의 중요한 지리적 본성이다. 인류 집단의 관념성은 종교와 언어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원시종교이든지 고등종교이든지 간에 삶과 죽음, 신분과 계급의 형성은 자연스럽게 관념체계에 의하여 규정되어 왔다. 동물과 달리 의사소통 수단인 언어는 특정한 현상을 인식하게 하는 사고방식이며 종교는 상징행위로서 인간 생활에 무엇인 중요한가를 보여주게 된다. 이러한 관념성은 경관, 도시나 촌락 설계, 이미지 조작 등으로 표현된다. 마지막 인간의 지리적 본성은 잡종성이다. 비록 사막, 대양 등 지리적 격리에 의하여 인류 집단은 신체적으로 다양한 인종으로 분류되지만 모두가 혼혈된 상태이다. 자신만의 순수한 혈통을 찾으려는 노력은 허사이며 기본적으로 잡종성을 지향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잡종성은 세계주의를 지향하는 본성을 말하게 된다. 이러한 지리적 본성은 장소, 지역, 경관, 환경, 공간 속에 투영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 2) 지리적 본성과 관련된 지리적 개념

이동성과 관련된 지리적 개념으로는 위치, 거리, 지도화, 운송, 여행, 이주, 전파, 거대한 순환 등이 있다. 거리는 물리적 거리와 상대적 거리가 있다. 거리를 측정하는 단위는 다양하며 오늘날 미터법이 세계적인 표준이다. 시간거리는 운송 수단에 따라 달라지며 시공간압축이 나타나게 된다. 시간을 측정하는 단위는 다양하지만 60초는 1분, 60분은 1시간, 24시간은 1일로 나누게 되었다.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지구 좌표 체계를 정해야 하며 전 세계적으로 경위도좌표 체계가 통

용된다. 위성항법체계에 의하여 GPS가 등장하였으며 지구를 하나의 타원체로 보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오늘날 지리정보체계가 채택되었다. 위치는 지도 상에서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지구를 평면상의 지도로 펼쳐놓은 것이 지도이며 지도가 갖추어야 할 요소는 방위, 축척, 범례, 투영법 등이 있어야 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지도는 그림지도에 불과하며 지도가 갖추어야 할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 물자 등을 화물로 취급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운송 또는 운반이라고 한다. 운송에 따른 비용과 노력이 들며 자동차, 철도 차량, 선박, 항공기 등 운송 수단에 따라 운송율이 다르다. 이러한 운송율에 따라 입지 조건이 달라지며 산업 발달이 이루어진다. 여행이란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거나, 자기 거주지를 떠나 객지에 나타나며, 다른 고장이나 다른 나라에 가는 일을 말한다. 기본전환이나 여가의 목적으로 떠나는 여행은 관광이다. 이주를 인구 이동이라고도 한다. 인구 이동은 시간적으로 영구 이동, 일시적 이동, 계절적 이동 등으로, 이동의 의지에 따라 자발적 이동, 강제적 이동 등으로 구별된다. 인구 이동의 결과 인구 불균등 현상이 나타나게 되며 인구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새로운 정보, 아이디어 등 혁신이 일어나게 되면 주변으로 퍼지게 되는 현상을 전파라고 하며 팽창전파(전염 전파, 계층전파), 이동전파, 자극전파의 유형이 있다.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전파가 약해지는 거리조락효과가 나타난다. 오늘날 사람, 화물, 정보 등의 이동은 순환하고 있으며 부의 창출이 끊임없는 이동성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적응성과 관련된 지리 개념으로는 자연보전, 기후변화, 지형변화, 환경영향평가, 적응전략, 토지이용 등이 있다. 자연환경이든지 인문환경이든 간에 환경이 문화를 결정하게 된다는 생각이다. 환경은 지구 상에 존재하므로 지구 환경이 사라지게 되면 인간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결정론적인 사고를 폐기할 수는 없다. 해일, 태풍, 지진,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를 피할 수 없으며 인간 활동에 의하여 자연 환경이 파괴되면 복구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자연보호 또는 보전에 관심을 가지는 일은 당연하다. 인간 활동이 자연환경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제한된 범위에서 인간

활동은 다양한 전략 수립에 의하여 환경에 적응하게 된다는 생각이다. 인간이 가진 욕구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자원과 에너지가 필요하며 이의 생산과 배분은 사회 제도 속에서 작동하면서 최대화, 최소화, 최적화의 전략 중 다양한 선택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적응 전략은 환경 보전에 유익하다.

연결성의 지리개념으로는 장소성, 연결망, 계층, 교통지리, 입지론 등이 있다. 특정한 자연 환경이나 인문 환경이 나타나는 곳을 장소라고 하며 어떤 특징을 갖게 되면 이를 장소성이라고 한다. 모든 장소가 장소성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장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특징지워진다고 볼 수 있다. 이주와 운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장소의 연결성이 나타나게 되고 대양, 사막, 산맥을 넘어 연결망이 형성된다. 지도상에 점으로 보이는 장소들은 도로, 철도, 해로 등을 따라 연결되고 하나의 망 속에 존재하게 된다. 장소가 다른 장소와 연결되는 범위가 나타나며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 계층이 이루어지게 되며 장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의 종류와 수에 따라 계층 구조가 형성된다.

관념성과 관련된 지리개념으로는 경관 읽기, 분포, 지역구분, 문화지역, 지역주의, 지역분쟁, 추억의 지리, 지리적 변천 등이 있다. 관념성이란 인간의 생각, 태도, 행동 등에 있어서 부여한 의미, 중요성을 말하며 대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다. 관념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는 대상, 색채, 소리, 몸짓, 언어, 의례, 사회조직 등이 있으며, 관념성이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된 것을 경관이라고 하며 경관읽기를 통하여 관념을 알 수 있다. 도로, 취락 등의 구체적인 경관이 바로 그것이다. 자연경관을 통하여 심리치료를 할 수도 있다. 경관 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나타난 집중, 분산 등의 분포는 그 요인을 밝힐 수 있으며 상관관계, 회귀분석, 요인분석 등 다양한 지리적 통계분석 기법을 낳게 하였다. 문화를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요소를 문화 속성이라고 하며, 몇 가지 문화 속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을 문화 유형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문화 유형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지리적 범위를 문화 지역이라고 하며, 두 문화 지역의 경계는 대체로 점이 지대로 나타난다. 세계는 문화 유형에 따라 12개의 문화 지역(또는 문화권)으로 구분된다.<sup>7)</sup> 이는 대개 자연 환경, 언어, 종

교, 경제 발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분한다. 비슷한 장소들을 분류하여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보는 장소의 관념성이 지역이며, 지역의 차이는 지역성, 혹은 지역주의를 낳게 되었다. 장소에는 지역애를 낳게 되고 지역 차별과 해소의 노력을 하게 된다. 문화의 기본 속성 중 하나인 종교는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예술·사회·정치·제도 등에 큰 영향을 끼친다. 대개 문화권은 종교를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다. 종교는 전 인류를 포교의 대상으로 하는 보편 종교와 특정 민족만 믿는 민족 종교로 나뉘어진다. 보편 종교로는 불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등이, 민족 종교로는 유대교, 힌두교, 천도교(天道敎) 등이 있다. 종교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민족간의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종교가 같이 존재하거나 종교가 다른 국가들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경우 종교 분쟁과 갈등이 나타난다. 특정한 종교 집단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기술과 정보, 종교 의식과 관련된 작물 등 유익한 문화 요소가 전달되기도 한다. 특히, 종교는 발생지의 자연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성지 순례 등은 경제와 문화 교류를 촉진시키기도 한다.

잡종성과 관련된 지리 개념으로는 인종의 잡종성, 문화의 잡종성, 장소의 잡종성, 세계주의 등이 있다. 대양, 산맥, 사막 등의 장애에 의하여 이주가 제한되어 다양한 지리적 인종이 출현하였다. 이들 지리적 인종은 피부색, 모발 형태 등에 의하여 서로 구별되어 순종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왔으나 최근 유전자 검사 등에 의하여 모든 인류 집단은 아프리카 흑인종의 잡종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인류 집단은 인종보다는 민족성에 의하여 이해하기 쉽다. 문화적 동질성의 정도에 따라 종족, 민족 등으로 분류하지만 오늘날 세계화에 따라 다민족, 다문화의 과정을 겪어 문화의 잡종성이 심해지고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세계화에 따라 근대국가의 위상이 약화되고 정치, 경제 부분의 국제화, 경제블록화로 인하여 국가간 연합이 강화되는 가운데, 국가 정부의 간섭이 축소되고 있는 중이다. 국가의 대외적 국제관계를 주도하는 초국가적 부분은 국제정치조직이나 초국가적 기업 등에 의하여 주도되면서 세계화가, 하위 국가적 부분은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와 더불어 지방화가 이행되고 있

다. 산업화가 진전되어 자본주의 물질문명이 꽃을 피운 후부터 문화라는 말은 상품의 소비라든가 예술, 관광과 같은 여가활동을 통한 소비 등과 동일한 것으로 그 의미가 더욱 축소되어 통용되고 있다. 비록 선진국에 국한된 경우라고 할 수 있지만, 분명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개인의 상품구매능력이 증대되고 인간들의 취향은 더욱 다양해져 예술과 같은 비가시적 여가활동을 위한 소비도 증가추세에 있다. 자본주의적 메커니즘과 맞물린 상품소비를 통한 욕망의 충족이 현대문화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자리를 잡아 자본주의적 일상생활과 연관된 상품들이 전 지구적으로 유통되고 소비되면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문화적 특징들이 세계 각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Ock et al., 2006).

자본주의적 현대문화를 대표하는 상품의 확산과 더불어 전통적인 국지지역의 문화가 상품화되어 세계화되는 현상이 자주 목격된다. 이 같은 문화의 상품화는 문화를 수단으로 하여 이윤을 얻고자 하는 노력이다. 문화의 본질적인 기능인 문화수용자들의 정체성 함양이라는 측면은 상품화된 문화의 기능과는 사실상 거리가 멀다. 상품화된 문화란 결국 자본주의 경제의 전 지구적 확산을 배경으로 그 시장을 확대하고 이윤을 늘려 가는 것이 최대의 목표가 되고 있고, 생산과 유통 및 소비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 중에 막대한 산업자본이 투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상품의 세계화를 통해 세계인들이 같은 문화 상품을 소비한다는 것이 곧 문화의 세계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문화상품의 세계화는 문화의 세계화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 결코 양자가 동일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는 없다. 문화상품의 세계화는 오히려 경제의 세계화에 속하는 것으로, 국지적인 문화가 단지 자본주의 경제의 전 지구적 확산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가능하고 있다고 보는 편이 나을 것이다. 문화는 하나의 상품이기에 이전에 한 집단의 생활양식이고 정신적 사고 작용과 집단 범주화의 수단이다. 단지 문화상품을 소비한다는 것이 의식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독립변수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현대사회에서 문화상품의 소비가 각 지역의 문화적 특징에 의해 선택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국지적인 문화와 자본주의 문화상품의 소비가 충

돌하면서 문화변용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문화와 문화 간 접촉도 빈번해지면서 기존문화의 파괴와 변용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문화가 변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변하지 않는 전통문화는 현대사회에서 불가능한 일이며, 끊임없는 재창출의 과정으로 겪는다. 따라서 타문화에 대한 개방과 수용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시공간 압축으로 인하여 근대화 사회에서 주체성이 약해진 몰개성적 지역과 장소가 만들어지고 있는 한편, 이러한 무장소성을 극복하기 위한 인간들의 의도적, 창조적 지역 및 장소 만들기가 의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거주민들의 정체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장소마케팅이라고 하는 지역과 장소의 차별화 전략은 세계화 시대의 치열해진 지역 간 경쟁에서 낙후되지 않기 위한 지역주체들의 경쟁력 강화 전략이며, 이는 물리적 건조환경의 효과적인 조성과 지역의 이미지 개선, 그리고 지역 주체들의 사회문화적 관계망과 정체성의 강화 등을 포함한다. 차별화된 개성을 지닌 지역과 장소가 문화적 소비의 대상이자 자본유치의 수단이 되고 있다. 지역과 장소를 소비의 대상인 하나의 상품으로 치장하는 것이, 생산자에게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필요충족의 요건으로서,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자신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의 요건으로서 인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도시공간상에서 직선미와 효율성을 강조하는 근대적 도시계획이 다양한 시각과 환경친화성이 강조되는 탈근대적 도시계획으로 변경되고, 이에 따라 기능성보다는 개성과 미학을 중시하는 새로운 경관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를 장소의 잡종성이라고 한다(Ock et al., 2006).

### 3. 교양과 지리경영으로의 발전 방향 전환

#### 1) 교양으로서의 발전 방향 전환

인간은 원래부터 지리적 본성에 기인하여 행동해 왔고 이것이 일상생활에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지리학은 존립의 근거를 갖게 되고 이제 교양으로서의

발전 방향 전환에 관해서 논의해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지리학의 대중화인 것이다. 교양이란 '학문, 지식, 사회생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위 또는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양으로서의 지리는 특정 계층을 위한, 전문 지식으로서의 지리지식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대중을 위한 지리지식을 말한다.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대중을 위한 지리적 탐구 방향이 정해진다면 지리학의 연구 목표는 자명해지기 때문에 그 방향에 따라 지리학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중등학교 학생들의 해외 '여행 지역과 분야'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학생의 일상생활 경험과 학습 경험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어 교육과정을 만드는 지리학자 및 지리교육학자는 보다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즉 지리교과의 세 가지 교수 요소의 하나인 교과 내용이 대중의 '일상생활 경험'과 유리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sup>8)</sup> 여행에 관하여 보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신교육과정<sup>9)</sup>은 지역 별 여행 주제를 아시아의 종교경관, 유럽의 축제문화, 아프리카의 관광자원, 오세아니아의 생태여행, 아메리카의 다문화 체험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특정 대륙, 또는 지역의 특성을 지리학자의 눈으로 정리하여 놓은 것을 바탕으로 한정되었다고 보여진다. 실제 학생의 해외여행에 대한 선호도조사에서는 여행 지역으로는 유럽과 아시아가 1, 2순위로, 가고 싶은 나라로는 중국, 영국, 프랑스, 이집트, 인도, 미국 순이었으며 해외여행을 통해 가장 즐기고 싶은 여행분야는 역사관광, 자연감상, 체험프로그램, 지역행사 참가, 현지 음식체험, 휴양, 공연관람, 쇼핑활동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과정 상의 내용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Ji, 2009).

그래서 과연 학습자, 혹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곳을 어떤 코스로 여행하고 싶어 할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에 대한 대답은 일간 신문지상에 광고되고 있는 관광 여행패키지 코스 상품에 잘 나타나 있다. 여행사나 여행관련 업체는 아름다운 절경을 찾아가게 하거나, 로맨스에 대한 환상을 불러일으키게 하며, 특히 계층적 정체성으로, 또는 소중한 인간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의무적 실천으로 관광 활동을 유인하

고 있다(Park and Everyday Life Study Group, 2004)고 한다. 이에 맥켈넬은 관광여행의 욕구란 위조로 가득 찬 사회 장치로부터, 단조롭고 비창조적인 노동으로부터, 단순하고 따분한 일상으로부터, 철저히 계산적이고 비인간화된 인간관계 등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하였다(MacCannell, 1994).

이제 우리나라는 관광생산 주체가 엄청나게 다양해져 전 국토는 관광지가 되고, 관광이 넘쳐나는 사회, 관광을 강권하는 사회가 되었다고 하겠으며 그 이면에는 일상을 탈출하고자하는 욕구가 깔려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내용이 지리학의 탐구주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sup>10)</sup> '여행'은 '문화 예술 활동', '레저스포츠 활동', '외식문화' 등과 함께 여가·문화생활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소득 및 소비 수준이 향상되고 노동시간이 줄어들어 정신적 육체적 재생산을 위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생활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들 활동 중 여행이 지리적 개념을 적용하기에 쉬우며 여행 코스의 개발이 중요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상품으로 전환된 우리의 '여행과 관광'은 '음주가무를 즐기는 유흥적 문화', '현장주의적·현세주의적 경향'과 결부되고 '폐쇄된 공간에서 은밀한 문화'를 즐기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Park and Everyday Life Study Group, 2004) 여행과 관련된 단원의 내용 구성은 한국인의 일상생활 원리를 보여주지 못하며 대중의 관심과 무관하다고 하겠다.

한편, 최근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우리 생활양식의 특성에 관해서는 도시시설의 분석을 통해서 잘 밝혀져 있다(Lee et al., 2009). 비록 소비행태에 국한하여 분석한 것이지만 도시시설 속에 나타난 생활은 일반적인 풍속 및 사회상의 생활양식, 의식주의 생활양식, 여가문화의 생활양식, 이동행태의 생활양식, 의료 관계의 생활양식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작가의 눈을 통하여 각 시대적, 지역적 상황을 읽어낸 것으로 지역을 잘 묘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한국인의 현대적인 생활양식은 '한국도시의 생활양식'이라고 하는 주제로 사회학자에 의하여 잘 정리되어 있다(Institute of Korean City Studies, 1998). 한국 도시인의 생활은 직장과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일로 맺어지는 관계는 엄밀한 의미에서 일 자체의

효율적 수행만을 위하여 기능을 하기보다는 광범위한 연출 속에서 온정주의적 요소가 결부되어 인간관계가 맺어지는 곳이라고 하였다. 가정의 경우 주택이 계층적 지위를 보여주는 주요한 척도가 되고 아파트 단지의 관계망이 자신의 위치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세대간의 격차가 공간적 분리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놀이문화의 구획화가 세대간의 격차를 역으로 심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음을 말하였다.

이러한 연구가 일상생활에 관한 지리적 개념을 충분히 도출하지는 못하였을 뿐 아니라 적용한 경우도 많지 않다.<sup>11)</sup> 지리적 개념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원리를 아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현대 한국인이 일상생활을 구성해 가는 원리는 현대 한국사회의 일상문화 코드(Park and Everyday Life Study Group, 2004)에서 잘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일상생활에서 작용하는 원리가 한국사회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고 현대의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였다. 그 특징적 원리는 급전 만능주의와 상품화된 일상, 성역 부재의 극단적 평등주의, 결과 우선주의, 속전속결주의, 현장주의의 현세주의, 물개성적 합일주의 등 6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지리적 개념과 결부시켜 음미해야 할 원리라고 본다.

이제 서구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활태도로부터 도출되고 고안된 지리적 개념은 마땅히 일상생활 원리에 의하여 입혀져야 할 것이다. 특히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의 중등학교 지리교육과정에서 제시되는 지리적 개념은 아직 지리학의 기본 개념과 지리교육의 기본 개념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없는 가운데 양자가 혼재되어 있으며, 지리교육의 기본 개념이 지도화, 지역성, 분포, 장소,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공간적 상호 작용, 문화, 경관 등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하였다. 이들 개념에 대한 지리 교육적 측면에서 위계화와 논리적 체계성은 학습자의 발달을 준거로 삼아야 하며(Jang *et al.*, 2002)<sup>12)</sup> 교양으로서 재정립되어야 필요성이 있다.

## 2) 경영으로서의 발전 방향 전환

오랫동안 지리학은 전문화를 위하여 힘써 왔다. 지

리학의 대중화보다는 오히려 대학원 전문 교육을 통하여 배출된 인력이 각종 연구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므로 지리학의 전문화는 발전의 축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계획, 개발 등의 구현되어온 지리학의 전문 지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경영이란 차원에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에 지리학은 '지리경영'으로 방향 전환을 모색해볼 때가 되었다. 그러나 과연 지리학에서 경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가. 경영의 대상은 초기에 기업조직에 한정되었지만 나중에 기업의 이윤을 획득하기 위하여 자본과 노동의 투입 요소 위에 마케팅, 정보, 조직문화, 시간, 능력, 네트워크, 지식, 신뢰 등이 추가로 투입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추가 투입변수가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을 보장해주는 경영 활동의 핵심을 이룬다고 하였다. 기업조직을 대상으로 한 이윤 획득의 투입 요소를 연구하여 발전해 온 경영학이 가정, 교회, 군대, 국가, 세계, 그리고 미래경영과 환경경영의 영역으로 그 적용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다가올 미래사회도 경영의 문제 대상이자 가장 중요한 해결방안으로 간주하는 종합과학으로 그 영향력이 발휘되고 있다(Park *et al.*, 2005).

앨빈 토플러는 부가 창출되는 장소, 장소를 선택하는 기준, 장소들을 함께 연결시키는 방식이 변하고 있다고 주장하게 되어 지리경영에 관하여 생각해볼 여지를 주었다. 그는 특히 부의 이동에는 장소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하였다(Toffler and Toffler, 2006). 오늘날 세계화는 인간의 지리적 본성의 산물인 동시에 거꾸로 그 특성을 강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에 따라 지리적 장소가 알려지게 되었으며 비즈니스, 관광, 여행 등을 위한 이들의 이동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화물, 인구 심지어 자본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허브가 고속철도, 항만, 국제 공항 등을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세계도시 체계가 형성되고 있는 예에서 이를 볼 수 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런던, 프랑크푸르트, 파리, 홍콩, 토쿄, 서울, 북경 등의 세계도시는 인류 집단의 이동성, 적응성, 연결성, 관념성, 집중성이 최대한 실현되는 장소가 되었으며 잠재 지속적으로 이들 도시가 일반 대중들의 관심과 집중의 핵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지리와 경영, 경영과 지리는 불가분의 관계

를 맺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영지리'가 아니라 '지리경영'이란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리더가 지리적 본성과 관련하여 항상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된다. 첫째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이동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인가? 둘째 이 장소에서 적응하여 생활하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인가? 셋째 이 장소와 저 장소를 연결하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인가? 넷째 이 곳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곳인가? 다섯째 이곳에서의 집중성은 가치 있는 일인가? 이러한 질문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고 행동 결과 지표 현상은 변모하게 된다. 어떤 특정한 장소가 이동하기에 가치 있으며 다른 장소와 연결되어 적응하며 생활하게 되면 가치가 배가되며 의미 있게 되고 집중성을 실현하기에 용이해진다면 어떤 특정한 장소는 지리적 장소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장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장소, 지역, 환경, 경관, 공간 등도 해당된다.

이러한 지리경영은 과거 개발, 계획이란 이름으로 지리학에서 다루어왔다. 지역개발, 국토개발, 지역계획, 환경계획 등이 그것이다. 이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채택된 분야는 국토종합개발이다. 이는 국토를 지형 기후 등 그 자연 조건을 고려하면서, 아울러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한 시책을 포함한 포괄적인 견지에서 종합적으로 이용, 개발, 보전함으로써 국민의 생산 활동 및 생활 활동의 향상을 도모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수자원·기타 천연자원을 개발하거나,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막는 시설이나 철도·도로·항구·공원 등 공공시설의 정비하는 일, 그리고 도시 농촌 배치나 공업 입지 등 토지이용의 적정화를 추진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Jung, 1988). 지역 계획도 그 내용이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비슷하지만 단지 차이로 지역계획은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발전, 및 풍요한 지역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국토개발과 지역계획은 '지리경영'이란 차원으로 승격되어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sup>13)</sup> 천연자원 개발, 자연재해 시설 설치, 공공시설 정비, 토지이용의 적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개발 계획이나 지역 계획의 협소성 보다는 이들과 관련된 장소, 지역, 경관, 환경 등의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보다 광범위해지고 철학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경영의 요소인 재정, 회계, 인력관리, 마케팅, 정보, 조직문화, 시간, 능력, 네트워크, 지식, 신뢰 등이 국토개발과 지역계획에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어야 하는 것이다. 계획의 기법에 머무르지 않고 국토개발과 지역계획이 경영이란 측면으로 아우러질 수 있다면 훨씬 지리학의 응용분야와 대상이 광범위해지고 지리경영 산업화가 가능해지리라고 본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지리경영 요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이를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일이 필요하다. 고객 만족, 고객 지향, 이익 지향, 반응적 윤리, 제품 지향, 경영자 위주의 전통적 비즈니스 대신에 고객을 즐겁게 하고, 고객 및 이해관계자 지향, 이익 및 사회 지향, 선행적 윤리, 품질 및 서비스 지향, 고객 위주의 글로벌 비즈니스가 지리 경영(비즈니스)을 더욱 더 요청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리 경영(비즈니스)은 빠르게 변화하는 경쟁 환경 속에서 어떤 기업이 정신을 가져야 하며, 지리 경영 요소가 부의 창출과 분배에 주는 영향이 무엇이며 글로벌 시장으로 가기 위한 전략 수립과 윤리적 행동이 무슨 관련을 가지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한 지리 경영(비즈니스) 사업체 경우 소규모 창업 방안과 바람직한 소유구조에 대하여 전망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지리 경영(비즈니스)는 관리자의 역할과 계획, 조직화, 지휘, 통제 방안이 일반 비즈니스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조직 모델에 관하여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지리 경영 요소의 생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지리 경영(비즈니스)의 경우 고객 중심의 마케팅 계획의 개발과 실행, 서비스 개발과 가격의 책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분석해야 하며, 지리 경영 제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광고 기법은 어떠한지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리 경영(비즈니스)는 일반적인 비즈니스의 재무정보와 회계와는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여 자금 조달의 재무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Nickels *et al.*, 2009). 장래 지리 경영(비즈니스)의 다양한 차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는지는 실제 사례를 통하여 찾아볼 필요가 있다.

#### 4.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대중화와 전문화가 지식의 발전이라는 전제 하에 이를 위하여 지리학은 대중의 '교양'이나 전문적인 '지리경영'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중화와 전문화에 더욱 다가가기 위한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기 전에 이 연구는 지리학 연구의 최대 걸림돌인 과학이나 예술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 그동안 과학적 지리학과 인본주의적 지리학의 이원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리적 본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동성' '연결성' '적응성' '관념성' '잡종성'의 지리적 본성을 기록과 성서의 창조론이나 진화론에서 추론한 후, 이들 지리적 본성에 따라 제반 지리적 개념을 정리하였다. 그동안 지리적 개념은 인문지리, 자연지리, 경제지리, 도시지리, 문화지리 분야에서 주제별로 언급되었기 때문에 지질학, 도시학, 경제학, 문화인류학과 중첩되거나 혼용되는 오해를 가져왔다. 이제 인간의 지리적 본성에 따른 인간의 지리적 탐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면 대중화와 전문화도 자연스럽게 수용될 수 있게 되었다. 즉 객관주의적이고 과학적 논리 실증주의적 방법론에 의존하게 되어 멀어진 감성적이고 심미적인 대중으로부터 공간과 장소에 대한 인본주의적 방법론을 통합시킬 수 있게 된다.

지난 '탐험과 발견의 시대' 이후 이루어져온 지리적 개념이 보다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대중의 취향에 다가서는 지리학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며, 오늘날 광범위하게 유행하고 있는 여행이란 주제의 예에서 보듯이 연구된 바가 적으며 지리 교육과정 상의 내용도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관광, 예술과 문화, 오락, 휴양 등과 같은 연구 주제가 대중에게 다가서게 되며 대중매체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서구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활태도로부터 도출되고 고안된 지리적 개념이 마땅히 일상생활의 교양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대중화와 함께 전문화의 경우 그동안 계획과 관리의 입장에서 얻은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지리경영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

다고 하였다. 오늘날 세계화는 인간의 지리적 본성의 산물인 동시에 거꾸로 그 특성을 강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지리는 경영의 주요 요소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지리경영 요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고객 위주의 글로벌 비즈니스는 지리 경영(비즈니스)을 더욱 더 요청하게 되며, 지리 경영 요소가 부의 창출과 분배에 주는 영향이 무엇이며 글로벌 시장으로 가기 위한 전략 수립과 윤리적 행동이 무슨 관련을 가지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뿐 아니라 지리 경영(비즈니스) 사업체 경우 소규모 창업 방안과 바람직한 소유구조에 대하여 전망해보아야 하는 것이다. 지리 경영(비즈니스) 관리자의 역할과 계획·조직화·지휘·통제 방안·조직 모델의 특수성, 지리 경영 요소와 생산과의 밀접한 관계, 고객 중심의 지리 마케팅 계획의 개발과 실행, 서비스 개발과 가격의 책정, 및 지리 경영 제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광고 기법 등이 지리경영의 내용이다. 향후 지리적 개념과 지리 분석 방법은 지리경영의 차원에서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끝으로 지리학의 '대중화'와 '전문화'가 '교양'으로서의 지리 지식과 전문지식으로서의 '지리경영'을 말하게 된다면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정개정이 필요하다<sup>4)</sup>고 하였다.

#### 주

- 1) 대중화라고 하는 개념은 오늘날 영화, 방송 등과 같은 매스 커뮤니케이션과 관련을 맺는 것을 말하게 되어, '교육받은, 질서가 있는' 의미 뿐 아니라 '평범한 다수의 사람들이 좋아 하는' 의미도 포함하게 된다.
- 2) 경기도 원곡고등학교 교사 김대훈은 대한지리학회보 107호의 칼럼 '긴 호흡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에서 대중의 지리에 대한 높은 인식은 더 전문화된 지리적 지식을 요청하기 때문에 전문화와 대중화는 깊은 관련을 가진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지리학과 지리교육학은 짧은 시기 동안 상당한 전문화를 이룩했지만 대중화는 부족하다고 하였다. 그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 일반 사람들의 지리에 대한 지식이나 인식 수준은 왜곡되거나 진부하며 대중화가 단지 지리적 지식을 넓게 보급하는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그동안의 전문

- 화가 지리적 지식의 보급에 실패한 것 뿐 아니라 대중과 유리된 전문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시사한다. 이 때문에 전문적 훈련을 받은 지리학자는 사범대학 지리교육과나 국토개발연구원 등 극히 제한된 직종에 진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본다.
- 3) 그 이유로는 초기에 한국지리학의 전문화 부족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도하게 지리교육이 현장에서 이루어져 훈련받은 교사가 부족하였다는지, 아니면 지리교육학의 정착과 발전이 더디었다든지 대중화가 지리교육에 너무 의존하였다는지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 4)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날에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였으며 땅은 생물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고, 어둠이 바다를 덮고 있지만 나중에 빛이 생겨나게 하였다. 둘째 날에는 둥근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로 나누고 그 공간을 하늘이라고 불렀다. 셋째 날에는 하늘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물은 드러나게 하여 땅과 바다라고 불렀으며, 땅에는 식물(풀과 씨를 맺는 식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온갖 과일나무)을 만들었다. 넷째 날에는 낮과 밤, 계절과 날과 해가 이루어지고 우주공간에 떠 있는 것들이 땅을 비추게 하였으며 이 중 큰 빛은 낮을, 작은 빛은 밤을 다스리게 하였다. 다섯째 날에는 물에는 움직이는 생물, 땅위의 하늘에는 새들이 번성하게 하였다. 여섯째 날에는 땅위에 온갖 생물(가축, 기어다니는 것, 들짐승)과 인간(남자와 여자)을 만들어 번성하게 하였다. 이 중에서 인간이 땅을 정복하고 물고기·새·땅위의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며 식물을 양식으로 삼게 하였으며, 짐승·새·기어다니는 생명체의 먹이로 푸른 식물을 주었다(Korean Bible Society, 2005).
  - 5) 다만 창조의 시간성, 하루의 길이에 관하여 이론의 여지가 많이 있지만 구약성서에 의한 천지창조는 예수 탄생 이전 4004년의 역사를 갖게 되었다.
  - 6) 자연 선택의 원리는 너무 단순하다. 평균적으로 보아 온 세계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하는 형질을 이어받은 개체들이 살아 남고 좋은 형질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아 자손을 얻으면 그 자손은 평균적으로 보아 환경에 더 잘 적응하는 형질을 가진다는 원리이다.
  - 7) 이에 동아시아 문화 지역, 남부 아시아 문화 지역, 동남 아시아 문화 지역, 유럽 문화 지역, 러시아 문화 지역, 아프리카 문화 지역, 건조 문화 지역, 앵글로아메리카 문화 지역, 라틴아메리카 문화 지역, 오스트레일리아 문화 지역, 태평양 문화 지역, 북극 문화 지역 등이 있다.
  - 8) 물론 지리학의 학문 내용이 교수학적 변환 노력을 거쳐야 한 다거나, 지리교과 영역이 어떤 학습스타일과 관련을 가지는 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 9) 2007년도에 제정되어 2009년도 다시 확정된 '세계지리' 교

육과정을 말한다

- 10) 최근 개편된 세계지리 신교육과정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 영역은 지리학습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일상생활경험과 교실에서의 교수학습을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흥미 있는 지리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인식되어 그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 11) 대중의 일상생활 경험을 중시하여 서술된 지리 저서로는 육한석·서태열의 「세계화시대의 한국지리 읽기」가 있다. 이 책은 인구 규모, 면적, 제조업출하액, 서비스업종사자 수, 공동주택 비율, 아파트 시세, 대형마트 수, 공원면적 비율, 자녀 1인당 월평균 교육비, 응급의료기관 시설 수, 문화공간, 노인인구 비율, 노인주거의료시설, 유치원 1인당 원아 수 등 생활 중심 지리적 변수에 의하여 6개 대도시지역과 8개도농통합지역의 지역성을 서술하고 있다(Ock and Seo, 2009).
- 12) 이와 병행하여 류재명은 지리 교과의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리교과를 통하여 배우는 이론이 갖고 있는 일상성과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실이 갖고 있는 부분성 사이의 차이를 완화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실'을, 그 '부분적인' 속성을 그대로 살린 학습 자료를 활용, 이를 통하여 전체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학습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며 구체적인 전략과 학습지도안 개발을 제시하기도 하였다(Ryu, 2002).
- 13) 뮌헨, 베버 등의 고전적 입지론이나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고전적 지리경영론으로서 재해석되어야 하며 이에 관하여 별도의 논문을 필자는 준비하고 있다.
- 14) 교양으로서의 지리교육은 대학에서, 지리경영으로서의 지리교육은 대학원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별화시키는 방안이 거론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Aydon, C., 2010, *The Story of Man*, Leader's Book Publisher.
- Jang, E. S., Kim, I. K., Lee, M. B., and Park S. K., 2002, Meaning and practice of geography life: Teaching and learning,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37(3), 247-261 (in Korean).
- Ji, M. S., 2009, *A Study on the Reconstruction of Life-Centered Geography Curriculum and Student*

- Preference: The Case of a Unit 'Journey into the World'*,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Institute of Korean City Studies, 1998, *Studies of Korean City*, Pakyoungsa, Seoul (한국도시연구소, 한국 도시론, 박영사, 서울).
- Jung, J. H., 1988, *Dictionary of Geography*, Usung Publishing Company, Seoul (정장호, 1988, 지리 학사전, 우성문화사, 서울).
- Korean Bible Society, 2005, *The Holy Bible: Old and New Testaments* (New Revised Korean Version), International Disiple Training Center Publishing, (대한성서공회, 2005, 개역개정판 성경전서, 도서 출판 국제제자훈련원).
- Lee, H. Y., 1991, *History of Geography*, Pubmunsu Publishing Company, Seoul (이희연, 1991, 지리 학사, 법문사, 서울).
- Lee, U. S., Kim, I. L., and Jang, U. M., 2009, Urban consumer life style of Seoul, *Journal of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21(1), 191-206 (in Korean).
- MacCannell, D., 1994, *The Tourist: A New Theory of Leisure Class*, Prentice Hall.
- Nickels, W. G., McHugh, J. M., and McHugh S. M., 2009, *Understanding of Business* (8th ed.), Life and Power Press.
- Ock, H. S., Lee, Y. M., Lee, M. B., and Seo, T. Y., 2006, *Reading World Regional Geography in Globalization*, Hanul Academy, Seoul (옥한석 · 이영민 · 이민부 · 서태열, 2006, 세계화시대의 세계지리읽기, 한울아카데미, 서울).
- Ock, H. S. and Seo, T. Y., 2009, *Reading Korea Regional Geography in Global Context*, Hanul Academy, Seoul (옥한석 · 서태열, 2009, 세계화시대의 한국 지리읽기, 한울아카데미, 서울).
- Park, G. C., Lee, Y. C., and Lee, D. H., 2005, *Reading Culture of Business: Classics*, Thenan Publishing Company, Seoul (박기찬 · 이윤철 · 이동현, 2005, 경영의 교양을 읽는다: 고전편, 더난출판, 서울).
- Park, J. H. and Everyday Life Study Group, 2004, *Everyday Life Cultural Code of Modern Korean Society*, Hanul Academy, Seoul (박재환, 일상 성 · 일상생활연구회, 2004, 현대 한국사회의 일상 문화코드, 한울아카데미, 서울).
- Ryu, J. M., 2002, Developing geography lesson plans to intergrate students' everyday experience to classroom learning activitie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and Environmental Education*, 10(3), 1-16 (in Korean).
- Toffler, A. and Toffler, H., 2006, *Revolutionary Weallth*, Curtis Brown, Ltd.
- 교신: 옥한석, 200-701,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e-mail: ock@kangwon.ac.kr, 전화: 010-9480-0007, 팩스: 033-257-4383)
- Correspondence: Han Suk Ock,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angwon Univ. Rd1, Chuncheon, Gangwondo, 200-701, Korea (e-mail: ock@kangwon.ac.kr, phone: +82-10-9480-0007)

최초투고일 2010. 12. 4  
수정일 2010. 12. 21  
최종접수일 2010. 12. 22